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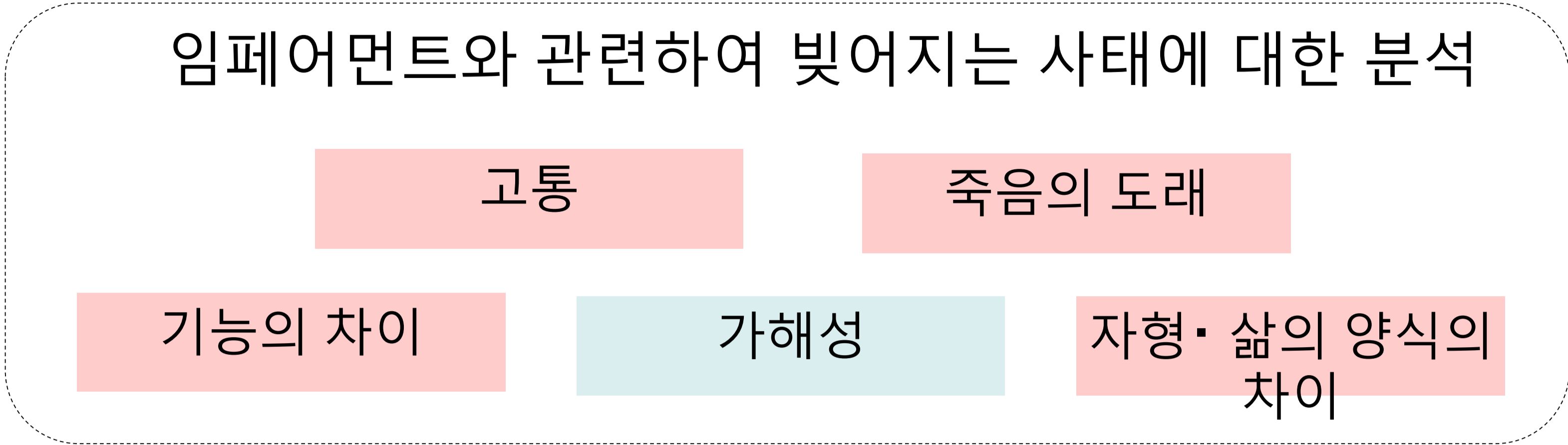
# 정신장애인 셀프 헬프 그룹의 고유 역할에 대하여

키리하라 나오유키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 일본 학술 진흥회 특별 연구원)

(번역자:신주형)

## 본 보고의 문제 의식

현재의 장애학은 정신장애인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라타 2014). 이러한 비판의 요인으로는 장애의 사회모델 이론 형성에 관여된 연구자가 주로 신체장애의 당사자라는 점을 들 수 있다(다테이와 2010a)(아마다·다테이와, 2011). 다테이와 신야는 임페어먼트와 관련하여 빚어지는 사태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다테이와 2011b). 이 중 가해성의 문제를 정신장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목적 및 방법

본 보고는 부정형 정신병 환자 A씨의 행위에 대해 가족, 제삼자의 태도와 SHG의 동료의 태도를 상호 작용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고유의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가해성에 관한 문제의 귀속/해소의 분석을 통하여 논점을 추출한다. 상호 작용 역할 이론:타인과 상호 작용을 통해 경쟁적 창조적인 역할을 취득한다. 이를 개인이 아니라 집단(장애인 정체성)에 적용시켜 이해한다.

## 조사

### 사례

A씨는 정기적으로 재발하는 부정형 정신병 환자이다. A씨는 재발로 인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골절을 입히고 이성과의 만남으로 가정의 재산을 탕진하였다. 그러나 A씨는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조증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한 기억이 없다. 병이 안정되어 있을 때의 A씨는 배우자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A씨의 행위는 A씨의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다. 그러나 A씨의 행위는 배우자, 제삼자에게 수용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인은 이해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셀프헬프그룹의 동료는 비슷한 경험에서 A씨의 비통한 상태를 감안하여 A씨의 입장에 서서 행위를 평가,수용하였다. A씨는 A씨 본의가 아니라는 귀결을 이해해 주는 동료의 존재로 인해 지지를 얻게 되었다.

### ■ 가해성에 관한 문제의 귀속/해소의 분석

	개인에게	사회로
원인 귀속	진단주의파: 개인의기질 (주로 뇌)에 원인이 있다. 생활주의파: 사회의 편견은 뇌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회제도 정비부족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책임 귀속	형사 책임은 책임 능력 상실에 의해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기타, 관련성의 문제는 가해 행위자의 책임이 된다.	책임을 지는 주체는 수감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으며 사회 전체의 복원을 요구하는 복원적 정의가 존재한다.
해소 가능성	임페어먼트 진단주의파: 가해성은 치료를 통해 극복하거나 가해성이 있을 경우에만 강제 치료를 한다. 생활주의파: 스티그마 문제를 들어, 복지 교육을 실천함. 가해성은 출현 시 진단주의에 전적으로 맡긴다.	디스어빌리티 가해성을 없애기 위한 강제 의료 제도가 있으며, 폐지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다만 제도 성립의 요인은 정신장애인을 두려워하는 대중의 감정에 있다. 대중의 감정 해소는 국가가 인간의 내면을 조작하는 것이며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복원적 정의 비판).

## 고찰

지금까지 가해성에 대한 대책은 비장애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신장애자의 행동을 봉쇄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정신장애로 인한 행위가 일반에게 이해되기 어렵다는 실정을 배경으로 삼는다. 이와 관련하여 셀프헬프그룹의 동료는 비슷한 경험으로부터 A씨의 비통한 상태를 감안하여 A씨의 입장에 서서 행위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셀프헬프그룹에 의한 이러한 행위의 수용은 일반의 인식과 비교하여 셀프헬프그룹의 고유의 역할로 취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스어빌리티인 강제 의료 제도는 제도 폐지에 의하여 해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해를 입는 경우를 피하고 싶은 대중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해를 입는 경우를 피하고 싶은 대중의 욕구”와 “그 욕구에 의해 지탱되어 온 제도”를 분리하여 생각함으로써 전자는 존중되고 후자가 해소된다면 좋을 것이다.. 해소라고 위치 지어 무리하게 정신장애인을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도 괜찮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에 셀프 헬프 그룹이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그에 따른 의의를 발휘할 수 있다. 불가피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설픈 해소를 시도하기 보다는 그대로 놓아두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서로의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공존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SHG는 특정의 행위 수용과 관련하여 그 고유한 역할이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시라타 코지, 2014, 「장애의 사회 모델은 해방의 사상인가?— 정신장애의 파악 그 어려움에 대해」『Core Ethics』10. ◆다테이와 신야, 2010a, 「「사회모델」·서문—연재57」『현대사상』38(10). ◆다테이와 신야, 2010b, 「「사회모델」·1—연재58」『현대사상』38(11). ◆다테이와 신야·아다마 죠스케, 2011, 「생존의 기법 / 생존학의 기법—장애와 사회, 그들 피아(彼我)의 현대사·1」『생존학』생활서원, 3.